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9. 8. 20(화)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메가프로젝트 발굴 연구지원단' 구성 · 출범** 도 내 각 분야 연구기관 소속 전문연구원 17명으로 구성 도 내 중·대형 국비사업(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 수행	미래전략기획단	 사진별첨
② **경북도, 과학기술의 힘으로 녹조 문제 해결에 나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녹조제어 통합플랫폼 구축 지역 현장 방문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민·관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책과	사진별첨
③ **2019 대한민국원자력산업대전 및 취업박람회 개최** 융복합시대 원전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기업 육성방안 모색 원자력 전공 학생 및 구직자 300여명 원전기업과 취업 면접	원자력정책과	사진별첨
④ **경북도, 반학반어(半學半漁) 청년정착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3개팀 15명, 4개월간 경북 동해안 어촌에서 활동 경북도는 활동비 등 지원, 학교는 활동시간 인정	동해안정책과	사진별첨
⑤ **경북도, '2020년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 선정 쾌거** 국비 6억원 확보, 김천·안동·칠곡 3곳 2.5㎞ 정비 노후 불량간판 정비로 개성있고 아름다운 도심거리 조성에 박차	건축디자인과	
⑥ **경북도, 도내 불법투기·방치폐기물 강력 대응!!** 도·시군과 공동, 끝없이 발생하는 불법폐기물 엄정 대처 연내 처리 가이드라인 준수, 불법폐기물 운반차량 몰수 등 법개정 건의	환경정책과	사진별첨
⑦ **경북도, 한국관상어품평회서 2년 연속 '금상' 수상 영예** 우수한 품질의 비단잉어, 자체 생산 기술력 입증 널리 알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사진별첨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2019 향토뿌리기업 지정기업 인증패' 수여 - 이철우 도지사,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참석	대 변 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8. 20(화)】	담당부서	미래전략기획단		
		작 성 자	단 장	김 성 학	
			팀 장	심인보	주무관 조창률
		연 락 처	054-880-4497		

경북도, '메가프로젝트 발굴 연구지원단' 구성·출범

- 도 내 각 분야 연구기관 소속 전문연구원 17명으로 구성 -

- 도 내 중·대형 국비사업(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 수행 -

경상북도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메가프로젝트 발굴 연구지원단'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경북도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메가프로젝트 발굴연구지원단 출범식 및 킥 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여 활동하는 '메가프로젝트 발굴 연구지원단'은 지난해 9월 출범하여 운영 중인 '도 메가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팀'과 함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국비 300억,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등 중·대형 국비사업 발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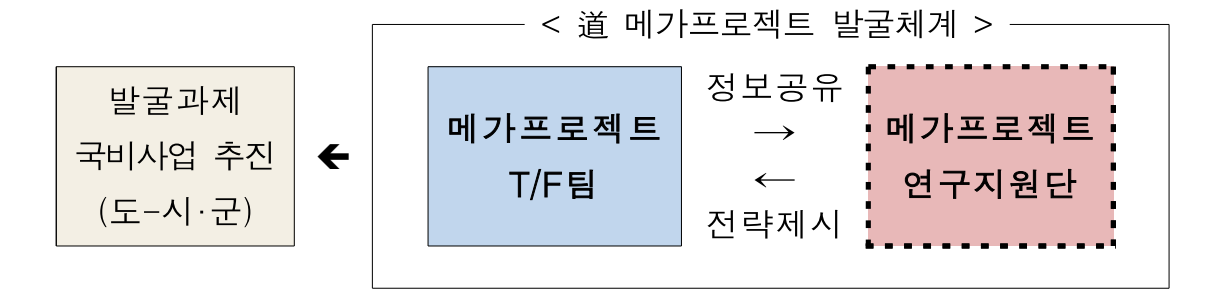
특히,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도 메가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팀'과는 달리, 이석희 도 정책자문관 및 김중표 대구경북연구원 경북센터장을 공동단장으로, 도내 주요 연구기관 소속의 전문연구원 17명으로 구성하여, 과학·산업, 산림·해양,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 혁신과제 발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 열린 첫 회의는 연구지원단 본격 출범 및 연구단원 소개를 시작으로,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 도 메가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팀 추진·운영 현황 보고(도 메가프로젝트 총괄팀), 연구지원단 운영방향 설명 및 토의(연구지원단 단장 주재)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향후 연구지원단은 매월 정례회의(1회)를 개최하여 합동토론식

으로 운영되며, ‘도 메가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융·복합 메가프로젝트 과제 발굴, 정부·산업 정책동향 분석 및 도 대응전략 연구·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 도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체계 】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도 메가프로젝트 태스크포스팀 단장)는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도 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분들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수적이다”며,

“우리도의 사활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 발굴·추진을 위해 연구지원단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메가프로젝트 발굴 연구지원단」 -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계획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8. 20.(화) 14:00 ~

○ 장　　소 : 경북도청 호국실(209호)

○ 참석대상 : 道 행정부지사, 연구지원단 연구단원 등 20명

○ 내　　용

- 「메가프로젝트 발굴 연구지원단」 출범식
- 道 메가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연구지원단 운영방향 설명 등

시간 계획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道 미래전략기획단)
14:05~14:10	'5	▸ 지원단 출범 및 연구단원 소개	
14:10~14:15	'5	▸ 인사말씀	윤종진 행정부지사
14:15~14:20	'5	▸ 道 메가프로젝트 T/F 관련 보고	道 메가프로젝트 T/F 팀장
14:20~14:40	'20	▸ 연구지원단장 인사 및 연구지원단 추진 · 운영방향 설명	연구지원단 단장 (道 정책자문관)
14:40~15:00	'20	▸ 질의 및 토의	주재 : 연구지원단 단장
15:00~15:10	'10	▸ 폐　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8. 20(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과학기술정책과		
		작성자	과 장	이 장 준	
			팀 장	박인환	주무관 오혜림
		연락처	054-880-2417		

경북도, 과학기술의 힘으로 녹조 문제 해결에 나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녹조제어 통합플랫폼 구축 지역 현장 방문 -
-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민·관 간담회 개최 -

최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칠곡보 등 낙동강 주요 수계에 녹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20일 4차 산업혁명 핵심 과학기술을 적용해 녹조 제어 통합 플랫폼 구축 현장을 방문하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녹조문제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매년 여름철 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낙동강 녹조는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생활 문제로 단편적인 대책 외에 과학기술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낙동강 녹조제어 통합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본 사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우리나라 녹조분야 연구를 주도해온 산학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그 동안 산발적으로 추진중인 녹조관련 연구를 종합, 집적하여 낙동강 수계를 대상으로 녹조 발생 오염원 관리 ⇨ 모니터링 ⇨ 분석·예측 ⇨ 제어·관리 ⇨ 수돗물 안전성 확보 등 녹조를 전주기적으로 예측·관리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합 녹조제어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구미시 비산동 일원에 녹조제거선, 수류확산장치, 모니터링 기술 적용을 위한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수상형 녹조 제어 기술의 요소 기술의 개량을 수행하고 있다.

또 조류 및 조류기인 수질유해물질 제어를 위한 소재 개발 및 평가를 위하여 안동시 영가대교 인근에서 실증하고 있다.

이에 ‘낙동강 녹조제어 통합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0일 구미 비산동 일대의 낙동강 실증지역 현장을 답사하고, 이어서 관련 산·학·연과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녹조 대응 국민생활연구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기반 녹조 문제 해결책을 논의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과학기술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량을 결집·활용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우헌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스마트 녹조제어 통합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 선정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관의 협력을 강조했다.

전우헌 경제부지사는 “녹조 관련 기술과 기관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녹조 피해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기업 발굴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경북지역에 녹조 관련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낙동강 녹조제어 통합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 관련
사업실증단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

◆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낙동강 녹조제어 통합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의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녹조문제에 대한 민·관·학·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회의개요

○ 일　　시 : 2019. 8. 20(화) 13:30 ~ 15:00

○ 장　　소 : 낙동강실증지역(구미시 비산동 584),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참 석 자 : 30명 정도(과기정통부 1차관, 경북도·구미시, 산·학·연, 시민단체 등)

※ 임석관 : 경제부지사

○ 주요내용

• 「낙동강 녹조제어 통합 플랫폼 개발 및 구축사업」 성과 시연 및 간담회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3:55	25′	▸ 실증연구 현장 방문 ○ 낙동강 녹조제어 통합플랫폼 개발 및 구축 연구성과 소개(구미시 비산동 584)	낙동강 실증 연구현장
13:55~14:10	15′	▸ 이동	실증지역 ⇨ 구미전자정보 기술원
14:10~15:00	50′	▸ 국민생활연구 활성화 간담회 ○ 발제(10′) - 녹조문제 全과정 녹조제어 통합 플랫폼 구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석구 선임연구위원) ○ 자유토론(40′) - 연구자, 일반 국민 및 지자체 관련 공무원 등	구미전자정보 기술원
15:00~	-	▸ 폐회 및 기념촬영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8. 20(화)】	담당부서	동해안전략산업국 원자력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김 승 열	
			팀 장	김성은	주무관 이미경
		연 락 처	054-880-7657		

2019 대한민국원자력산업대전 및 취업박람회 개최

- 융복합시대 원전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기업 육성방안 모색 -
- 원자력 전공 학생 및 구직자 300여명 원전기업과 취업 면접 -

경상북도는 2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후원하는 ‘2019 대한민국원자력산업대전 및 원자력기업 취업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금번 5회를 맞는 산업대전(취업박람회 3회)은 국내 원전업체 및 연구기관, 해외 원전바이어, 교육기관 등 1,000여명이 참가하고, 21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전우헌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주낙영 경주시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재훈 사장, 원자력환경공단, 한전기술 등 원전유관기관 간부들과 원전 협력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올 한해 원자력분야에서 유공이 있는 기업인 등 10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경상북도 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산업대전과 취업박람회에서는 원전관련 중소기업에게 해외수출 판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원자력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과 구직자들에게 좋은 취업 정보를 알려주어 기업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한수원과 협력사, 원전관련 유관기관 등 45개 기관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20일 열린 취업 박람회에서는 원자력 전공 학생, 구직자 300여명이 원전기업과 개별 면접을 했다.

취업박람회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실전면접특강, 기업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진로 · 직무 상담부스도 운영했다.

그리고 이력서 사진촬영과 취업메이크업, 이미지 메이킹 등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또한 올해는 채용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면접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러시아, 베트남, 체코 등 해외 5개국에서 초청된 해외 바이어들과 국내 원전기업 간 수출상담회가 1:1 미팅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역 원전기업 육성 및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 세미나도 개최된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오랜 기간 동안 경북도와 경주시가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올해 중수로해체기술원, 한전케이피에스(KPS)원자력정비기술센터,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설립 등 결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며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이 최종적으로는 원전 지역에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019 대한민국원자력산업대전 개최계획

○ **원자력 전시회** 등 산업대전 개최를 통해 **지역 원전산업 육성 발판 마련**
○ 「**원자력기업 취업박람회**」와 **연계**하여 건전한 원전산업 생태계 구축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

Ⅰ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9 **대한민국원자력산업대전**
○ 기　　간 : 2019. 8. 20.(화) ~ 8. 21.(수) / 2일간
○ 장　　소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 참여인원 : 1,000여명(주요내빈, 원자력전문가, 기업, 관람객 등)
○ 주　　최 :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주)
○ 주　　관 : 한국원자력신문사, 포항테크노파크
○ 주요내용 : 개막식, 전시회, 특별세미나, 수출상담회 등
※ 원자력기업 취업박람회 연계 개최

Ⅱ 주요행사

구　분	행사 내용
개막식 (8.20)	○ 개막 테이프커팅, 개회사 및 축사 ○ 원자력산업대상 표창(산자부장관, 경상북도지사) ○ 취업박람회 및 전시장 투어
전시회 (8.20~8.21)	○ 원자력산업 홍보관 운영(한수원, 협력 중소기업 등) ○ 원자력연구개발 기관 사업 소개(원자력연구원 등) ○ 원자력안전문화 홍보(원자력통제기술원 등) ○ 원자력인력양성 사업 소개(포스텍, 원전현장인력양성원 등)
특별세미나 (8.21)	○ 원전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기업 육성방안
수출상담회 (8.21)	○ 스페인,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 지역 원전기자재업체 수출 판로 개척 지원
취업박람회 (8.20)	○ 자기소개서 멘토 특강, 기업별 공채 안내, 실전면접 등

Ⅲ 세부일정

일정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8.20 (화)	09:30~10:30	등록 및 안내	
	10:30~10:40	• 테이프 커팅	하이코 입구
	10:40~11:50	• **산업대전 및 취업박람회 개막식** - 개식선언 (원자력신문사 회장) - 개회사, 환영사 및 축사 - 시 상 : 10명(산업부 장관 5, 도지사 5) - 기념촬영	**개회사 : 경제부지사**
	11:50~12:00	• **취업박람회 투어**	3층 300A,B
	12:00~12:20	• **산업대전 전시장 투어**	1층 전시장
	12:20~13:20	• **오 찬**	1층 101호
8.21 (수)	10:00~12:00	• 특별세미나	101,102호실
	10:00~17:00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전시장내

Ⅳ 기대효과

○ 국내 원자력산업의 최적지로서의 경북 홍보 계기 마련

○ 지역 원전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 및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2018 개최 결과

◇ 일 시 : 2018. 8. 29 ~ 8. 30(2일간)
◇ 장 소 :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 주최/주관 : 경상북도 · 경주시 · 한수원(주) / 원자력신문사
◇ 내 용 : 전시회, 실전면접 요령 및 기업채용 계획 안내 등
◇ 실 적 : 전시회 - 48개사 참가, 수출상담 40건, 265백만$
취업박람회 - 24개사 참여, 31명 취업(한수원, 한국전력 등)

Ⅴ 원자력산업대전 및 원자력기업 취업박람회 개막식

행사개요

○ 일　　시 : 2019. 8. 20(화) 10:30 ~ 13:20

○ 장　　소 :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3층

○ 주　　제 : 융복합시대 원자력산업 '무소의 뿔처럼 가라'

○ 참 석 자 : 원전관련기관, 기업, 해외바이어 등 150여명

※ **주낙영** 경주시장, 정재훈 한수원사장, 김 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장
원자력환경공단·한전기술 간부, 해외바이어, 기업 등

○ 주최/주관 : 경상북도 · 경주시 · 한수원 / 한국원자력신문사 · 포항TP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30		환 담	VIP룸 (1층 105호)
10:30~10:40	10 "	테이프커팅	전시장 입구
10:40~10:45	05 "	VIP 이동 및 착석	300C (3층)
10:45~10:50	05 "	행사 시작 및 내빈 입장 멘트	사회자 (이도현 아나운서)
10:50~11:00	10 "	개막식 축하 공연	경주시립합창단
11:00~11:05	05 "	주요내빈 소개	사회자
11:05~11:08	03 "	개식선언	강교식 원자력신문사 회장 (주관기관)
11:08~11:13	05 "	개회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11:13~11:30	17 "	환영사 및 축사	경주시, 한수원
11:30~11:45	15 "	2018대한민국원자력산업대상	산업부장관상(5명), 도지사표창(5명)
11:45~11:50	05 "	기념촬영	
11:50~12:00	10 "	취업박람회 참여기관 격려	개막식장(300C) → 취업박람회장(300AB)
12:00~12:05	05 "	이 동	3층 → 1층
12:05~12:20	15 "	전시장 투어	1층
12:20~13:20	60 "	오 찬	1층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8. 20(화)】	담당부서	동해안전략산업국 동해안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정 현 표	
			팀 장	권병석	주무관 정종혁
		연 락 처	054-880-7613		

경북도, 반학반어(半學半漁) 청년정착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 3개팀 15명, 4개월간 경북 동해안 어촌에서 활동 -
- 경북도는 활동비 등 지원, 학교는 활동시간 인정 -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학생들에게 어촌 정착기회를 제공하는 '반학반어 청년정착 시범사업의 대상자' 를 19일 선정했다고 금일 밝혔다.

반학반어 청년정착 시범사업' 은 새로운 소득기회 창출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어촌지역에 청년유입을 통해 지역에는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반학반어(半學半漁)' 사업에 선정된 학생들은 주5일중 3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2일은 어촌에서 생활체험 활동을 한다.

이 사업에는 5개팀 25명이 다양한 연구 아이템을 가지고 지원해 서류심사와 발표, 면접을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3개 팀을 선정했다.

선정된 3개팀이 수행할 과제로는 ▲지역 특화자원 활용 음식컨텐츠 개발(경일대) ▲가공식품 제조·운영 모델 개발(경일대) ▲지역 특화자원 홍보방안 마련(계명대)이며, 4개월(9월~12월) 동안 포항, 경주, 울진 등 어촌마을을 돌며 과업을 수행한다.

이번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은 어촌마을이 고기를 잡는 삶의 터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 등 어촌에 대한 새로운 시선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마을재생과 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에서는 이번사업이 실시되면 교육 및 컨설팅,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소속 학교로부터는 활동시간에 대한 인정도 받게 된다.

전강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보면서 지방대학과 지자체가 합심해서 지방소멸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하며, 이번 사업이 어촌마을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나아가 창업과 정착을 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촌마을 정착을 돕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8. 20(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작성자	과 장	강 성 식	
			팀 장	서윤석	주무관 남동일
		연락처	054-880-4027		

경북도, '2020년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 선정 쾌거

- 국비 6억원 확보, 김천·안동·칠곡 3곳 2.5km 정비
노후 불량간판 정비로 개성있고 아름다운 도심거리 조성에 박차 -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20년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김천시, 안동시, 칠곡군 등 3개 시군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3억원(국비 6억원, 지방비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사업지구 : '김천 김천역주변거리', '안동 중구동 공구거리상가', '칠곡 왜관읍 시가지'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40여개 시·군이 사업을 신청해 서류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29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그 중 경상북도가 3개 사업을 가져오는 성과를 이뤘다.

간판개선사업은 낡고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노후 불량간판을 지역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2.5km 구간 내 336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다.

2020년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자율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간판디자인 및 제작·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한다.

한편 경상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도비 112억원을 투입해 80개 지구의 간판을 정비하는 등 도시이미지 개선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강성식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간판개선사업, 공공디자인시범사업 등 도 자체사업과 함께 행안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주변 환경과 지역 특성을 살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거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8. 20(화)】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김 종 헌	
			팀 장	강병정	주무관 라경연
		연 락 처	054-880-3538		

경북도, 도내 불법투기·방치폐기물 강력 대응!!

- 도 · 시군과 공동, 끝없이 발생하는 불법폐기물 엄정 대처 -
- 연내 처리 가이드라인 준수, 불법폐기물 운반차량 몰수 등 법개정 건의 -

경상북도는 20일 도청에서 도 · 시군 불법폐기물처리담당 과장 대책회의를 갖고 도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폐기물 운반자에 대한 차량 몰수, 폐기물처리업체 씨씨티브이(CCTV)·운반차량 지피에스(GPS) 설치 의무화, 허용보관량 초과 시 반입금지 처분, 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색 지정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에 관계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투기·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지속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불법폐기물 운반 차량 몰수 등 제도 개선과 사업장폐기물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도입하는 등 주민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 불법폐기물은 31.4만톤이며 8월 추경에 확보한 국비 186억원 등을 투입, 연내에 15.6만톤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8. 20(화)】	담당부서	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작성자	소 장	김 상 국	
			팀 장	남효상	주무관 박재민
		연락처	054-830-8821		

경북도, 한국관상어품평회서 2년 연속 '금상' 수상 영예

- 우수한 품질의 비단잉어, 자체 생산 기술력 입증 널리 알려 -

경상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회 한국관상어박람회, '비단잉어 품평회'에서 자체 종자생산 한 비단잉어(소화삼색) 50cm급 1마리를 출품하여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소화삼색 : 머리 부분에 흑색이 있는 것이 특징, 몸통에 홍·백·흑색의 3가지 색이 있는 비단잉어

이번 품평회서 금상을 받은 비단잉어는 '16년도 5월에 생산한 것으로 흑색의 질이 우수하고 아름다운 체색 조화와 균형 잡힌 체형유지의 우수성을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우리 도의 자체 생산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현재 비단잉어 연구동(면적 288.6㎡) 내 순환여과식 사육수조 10개조를 운용하여 친어관리, 고품질 치어생산 및 우량품종 집중 육성연구를 통해 관상어 산업화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품평회 입상을 계기로 고품질 관상어의 자체 생산능력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애호가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시험연구를 통한 우량품종 개발과 생산기술 보급으로 귀어·귀촌하는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관상어 품평회』 2년 연속 '금상' 수상

❖ 관상어 품평회에 **자체 생산·사육한 우량 품종**을 출품, **전문가 평가**를 통한 **사육기술 정립** 계기 마련

※ **수상어종 : 비단잉어 부분(소화삼색)** ('18년 대정삼색)

품평회 개요



❍ 일　　시 : '19. 8. 17(토) 11 : 00

❍ 장　　소 : 경기도 일산 킨텍스

❍ 주최(후원): 한국관상어협회 (해양수산부)

❍ 참 가 팀 : 15개팀 (지자체, 동호인 등)

❍ 선발기준 : 아름다운 체색의 조화, 균형 잡힌 체형 등

출품 및 수상



• 출품어종 : 50cm급 비단잉어 (昭和三色)

• 생산년도 : 2016년 5월 (자체생산)

• 수상내용 : 관상어 부문 금상(2위) - 국내 연구기관 최초(2년 연속)

* 昭和三色 : 머리 부분에 흑색이 있는 것이 특징, 몸통에 홍·백·흑의 3가지 색이 있는 비단잉어

향후계획

❍ 지속적인 시험·연구를 통한 우량종자 생산기술 정립·보급으로 귀어·귀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

❍ 국내 4천억 관상어시장 경북道 조기선점을 통한 산업화 추진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2019 향토뿌리기업 지정기업 인증패’ 수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접견실에서 올해 신규 지정된 ‘향토뿌리기업’ 대표에게 인증패를 수여한다.

□ 이철우 도지사,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 21일(수) 오후 2시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한다.